

(시)

2017년 7월 2일 주일말씀에 첨부

부지런

부지런한 배가
아침 바다를 깨우고
부지런한 자가
새벽을 깨운다

미리 하는 자만
제때 맞춰 살아가서
보람차다
기뻐하며
하늘 모시고
잔치한다